

복지관 소식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

‘함께해서 행복한 북방/태학살이’ 프로그램 운영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8월 2일 수요일부터 지역주민 간 친환경 활동을 통한 지역조직강화 함께 이룸 프로젝트, ‘함께해서 행복한 북방살이와 태학살이’ 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북방면 상화계리와 홍천읍 태학리에서 친환경 교육과 퍼실리테이션 및 평가회의는 합동으로 진



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및 제로웨이스트 미술 활동, 친환경 캠페인 활동, 타 경로당 전달 교육, 인스타 릴스 홍보 등 이외의 활동은 각 지역에서 따로 진행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두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활동 내용을 교차분석하고 이를 통해 차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 방향



을 모색할 예정이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북방면 상화계리와 홍천읍 태학리 어르신 및 마을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함에 따라 깨끗한 마을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 조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원예테라피

국민연금공단 수급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사업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8월 4일 금요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 이금숙 복지원예사와 함께 총 3회의 원예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회차	활동 내용
1	행운의 호접란, 프테리스, 수대, 바크를 활용한 화분심기
2	기쁜 소식과 헌신의 꽃말을 가진 나만의 몬스테라 꾸미기
3	테라리움 이끼 화분 꾸미기 활동

식물을 심고 추억을 되새기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원예는 직접 씨앗을 뿌리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과의 교감’과 나만의 방식으



로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안정감 및 치유, 소근육과 대근육 사용으로 인한 인지·신체적 기능 향상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을 가꿀 때 과한 관심으로 물을 많이 주고 햇볕에 장시간 노출 시키면 뿌리가 썩고 잎이 타서 키울 수 없게 돼버린다. 그렇다고 관심을 너무 주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된다. 이는 자녀



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감싸고 돌면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관심을 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병이 나게 된다. 이렇듯 사람과 식물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을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

CONTENTS



02 - 마을 탐방
03 - 기관 탐방
04 - 경로당 탐방

04 - 노년기 감정
05 - 노년기 건강
06 - 노년기 재정 문제

07 - 한국의 금융과 자본(9)
07 - 인생칼럼
08 - 농지법 개정



살기 좋은 마을 탐방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면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함께하는 가족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남편 혼자, 또는 드물게 아내 혼자 전원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좋은 마을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지인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잠시 생활을 엿보면 그들의 삶이 보이기도 한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떤 지역을 찾고, 마을을 찾을 것인가? 오늘은 홍천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소개한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탁구반 라지볼(Large ball) 강습

원소리 마을회관 농산물 집하장 넓은 공간에 들여놓은 탁구대에서는 웃고 떠들며 박수 소리가 요란하다. 농사철 바쁜 기간이지만 더운 낮에 주민들은 탁구 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원소리 주민들이 탁구를 배우고 싶어도 복지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멀어 원소리 이장님의 요청으로 선배 시민 봉사단원들이 주 1회 방문하여 탁구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라지볼은 공이 주황색이고 일반 탁구공보다 지름이 0.4mm가 커서 속도가 비교적 조금 느리므로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운동이라고 한다.

복식 게임을 할 때는 비명과 환호 소리에 희비가 엇갈리며 웃음소리가 요란하다. 오늘 점심 내기가 걸려 있어서 서로 점수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졌다.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원소리 마을 어르신들은 삶에 활기와 재미를 느끼며 마을 주민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만나면 탁구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고향의 산천엔 이웃도, 고향도 옛 고향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 떠난 고향을 다시 찾아왔으나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데없네.' 고려말 길재(吉再) 선생 시의 한 구절이다. 이제 옛 그 시절의 고향은 더 이상 없다. 쓸쓸하기도 하지만 인심도 변했다. 작은 땅 하나로 이웃 간에 다투는 것은 예사이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은 더 슬프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리도 각박한가? 모퉁이 조그만 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작은 땅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삶이 불편하고 아주 불행하게 느끼기도 한



〈원소리 마을회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과 마을주민들〉

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마을,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어 한다.

원소리 마을을 방문 취재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실감하기도 했다. 그들의 즐거운 모습과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웃 간의 친화, 삶의 여유, 리더십이 있는 진정한 리더 때문일까? 원소리의 박수열 이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까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치우침이 없이 솔선수범하는 마을 이장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불평, 불만이 없이 화합하는 주민들 모습에서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다.

도시직장 생활의 불꽃 튀는 경쟁 속에서 살다가 퇴직 후엔 산과 강이 있고 마당에는 꽃과 잔디, 작은 텃밭이 있는 한적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꿈이라고들 한다. 농촌에서라면 그 정도 꿈은 어렵잖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작고 소박한 이런 꿈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슬픈 이야기도 있다. 너도, 나도 함께 소박하게 살면서 남은 생애를 불편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숙제이리라.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기관 탐방

재가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케어〉

맞벌이가 성행하는 요즘 자녀들이 직장 생활 등으로 가족 부양의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기거하며 사고 유발과 열악한 음식물 섭취, 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점점 인지 활동이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여러 요인이 국가적인 손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는 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되찾고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받은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된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적인 면

어르신들이 매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기거하며 청결한 음식을 받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며 신체활동과 인지 활동을 병행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이러한 어르신 중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위를 거쳐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판정 받으신 어르신으로 주로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경증 어르신들이 이용 대상자이다. (1등급이나 2등급은 주로 요양원에 입소)

[센터 내에서 어르신께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입소 시 바이탈 체크, 체온 체크, 투약, 점심 제공, 간식 제공,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인지 활동 활성화, 매일 반복되는 건강 체조와 다각도의 신체 활동으로 운동력 향상, 동년배의 친구들과 일상생활을 통한 사회성 함양 등을 들 수 있다.

[입소하기 전 점검해야 될 좋은 시설의 특징은 무엇인가]

- 공용면적이 넓고 생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
- 관리자의 다양한 실무 경력과 경험을 겸비한 곳
- 직원들의 인성 교육과 전문성이 철저한 곳

-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어르신들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곳
- 상가건물보다는 어르신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도시 근교 5~10분 거리 이내에 설립된 곳
-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돌봄 시스템은 점점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 자금 중당의 한계성으로 인해 국가의 공적자금, 즉 보조금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겸비된 우수 시설의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두촌면 장남1리 경로당’을 찾아서

2023년 8월 5일 홍천군 두촌면 장남1리 경로당 취재를 위해 경로당에 찾아가 임한천 두촌면 분회장과 장남1리 홍현일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기자 : 요즘 두촌면 16개의 경로당 상황은 어떤가요?

분회장 :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경로당이 문을 활짝 열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기자 : (경로당 회장님께) 장남1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경로당 회장 :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바쁜 일과를 보내며 생활하고 있어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아침이면 경로당에 모여 마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노래 교실, 치매 교육, 웃음 체조, 민요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과 각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기자 : 회장님이 바라는 장남1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경로당 회장 : 일을 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밝은 내일을 위해 건강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원 간 서로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하며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촌면 임한천 분회장과 장남1리 홍현일 회장은 회원 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화합하여 밝은 모습으로 지내며 경로당이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쉼터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며 끝을 맺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외로우신가요? 고독하신가요?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엄연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살면서 타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므로 중요한 현상이다. 게다가 고질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감정에 괴로워하는 인구의 비율은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어째서 외로움은 그토록 괴로운가? 외로움은 우리 자신에 대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감정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말해준다. 외로움은 자기가 있든지 없든지 별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추방된 것처럼 느껴진다.

니체는 인간이 오직 고독 속에서만 자신의 참다운 성격을 계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동체를 떠나 고독을 추구해야만 '더 나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안도하면서 고독의 품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생각하기에 혼자 사는 이에게 타인은,

설령 이 타인이 친구라고 해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거치적거리는 방해꾼이다. 고독한 자에게 친구는 언제나 제삼자다. 제삼자는 둘의 대화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코르크 부표와 같다. 고독은 인간사회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깨끗해지고자 하는 숭고한 경향을 보여주는 '덕'이다.

고독에는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이 따로 있으므로 모름지기 좋은 고독, 자유롭고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고독을 선택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고독을 견디는 역량은 배우고 익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좋은 고독을 발견할 수는 없다. 고독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면의 어두운 부분마저도 성장한다. 자신의 성격을 계발한 후에 비로소 고독에 들어가야 한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다. 고독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하여’ 타인과의 소통에서 의미와 기반을 만들어 주는 숭고한 시간이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타인과의 관계에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평소 혼자 생각하고 성찰할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타인과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경희 기자
(Kyung-hee@hanmail.net)

노년기 건강

가성치매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의 관계



〈치매예방 청춘교실〉



〈몸펴기 생활 운동〉

노인성 우울증은 지나치기 쉬운 질병이다.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면 기억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유지되지 않고 산만한 상태가 되어 방금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웃도 같아 입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으며, 목욕도 하지 않는 등,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매사에 귀찮아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우울증의 증상은 크게 정서적(Emotional), 신체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총 세 가지 증상으로 나뉜다. 환자 다수는 우울한 기분,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과 불면, 식욕 저하 등의 신체적 증상을 먼저 호소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과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울한 기분이나 불면 증만큼 흔한 우울 증상 중의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즉, 인지기능의 장애인데 우울증의 인지적 증상은 크게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 운동 기술후속도 장애, 생각의 속도 장애, 의사결정 및 판단 장애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울증과 기억력 손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겪을 수 있다.

- 대화 중 말하고자 하는 특정 단어를 떠올리지 못한다.
- 어제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잊어버린다.
- 최근 접했던 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의 내용을 떠올리기 힘들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겪는 기억력 저하라는 인지적 문제는 우울증이 나아진 후에도 여전히 잔존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방금들은 얘긴데 기억이 나지 않고 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로 잘 안 나와요.’ 같이 우울증으로 치매와 비슷한 인지 저하를 보이는 증상을 ‘가성치매’라고 한다. 치매로 병원을 찾는 사람 10명 중 4명이 가성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와 증상이 비슷하다. 다행히 다른 치매와 다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악화하면 다른 치매 발병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가성치매... 그냥 두면 진성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가성치매 환자와 진성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성치매 환자는 실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됐다가보다 집중력 저하가 원인이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겐 겪었던 상황에 대한 단서를 쥐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성치매 환자는 단서를 주면 그 상황을 기억해 낼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에 가성치매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성치매 환자는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 저하 외에도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식욕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가성치매 환자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우울증이 만성화되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우울증 재발 우려도 커져 인지 저하 능력 회복이 어려워진다. 가성치매 증상 중 하나인 무기력도 병이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회복하려면 외부 활동과 운동을 하거나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치료를 안 받고 오래 방치해두는 환자들은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어 대시질환부터 치매까지 다양한 질환으로 악화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성 치매를 예방하는 법

가성 치매 예방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아닌 혈관 관리, 운동, 사회활동이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 건강한 식습관과 금주, 금연해야 한다. 운동은 혈관 건강도 지키고 우울증도 완화할 수 있는 필수 예방책이다.

운동 자체가 뇌세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신경전달물질 분비량이 감소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또한 모두 도움이 된다. 운동을 시작하는 게 힘들다면 하루 30분만 걸거나 일상생활에서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또한, 사회활동 등으로 사람과 교류하게 되면 우울감이 훨씬 덜어질 수 있다. 사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재명 교수는 할 수 있는 만큼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뇌의 활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1,26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혈관 관리,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했더니, 약물 복용 없이도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 청춘교실,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자격증반, 인터넷&스마트폰, 몸펴기 생활 운동 등 노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으로 노년사회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노후에 먹고 살 걱정 안 하기?

2022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886달러이다. 한화로 4,248만 7천 원이다. 1953년 66달러에서 70년 만에 무려 500배로 증가한 것이다. 온 국민이 오매불망 바라던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가 열린 때가 1994년이다. 이 눈부신 성장에는 지금 노인 세대의 피땀과 눈물이 서려 있다.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로, 베트남 정글에서 목숨과 팔다리를 내놓은 군인들과 근로자들, 모래폭풍을 맞으며 열사의 땅 중동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방울을 흘렸던 중동 건설일꾼들, 메리야스, 가발 하나 팔기 위해 생사를 넘나들며 전 세계를 발바닥이 닳도록 뛰었던 종합상사 직원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았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층의 틀에 갇혀있다. 물론 노인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이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흔히 말한다. 지금은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1달러라도 더 송금하려고 했다. 조국에 해가 될까 봐 억울해도 참고, 얻어맞아도 당하기만 했다. 그랬던 이들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를 걱정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갱도 속에서 -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

노후에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걱정 많은 사람들

국민연금공단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982쌍이라고 발표했다. 그중 최고 수급

자는 월 470만 원을 받는다. 2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2만 6,051쌍이다. 노후 적정 생활비가 부부 월 277만 원, 개인 월 177만 원이고, 최소생활비가 부부 월 219만 원, 개인 월 124만 원이다. 이를 볼 때 대부분 노인의 연금 수급액이 최소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생활비에라도 도달하려고, ‘놀면 뭐 하나,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벌어야지’라고 둘러대며 폐지를 줍고, 경비를 서고, 간병인으로 나가고, 공공근로를 나가는 것이다. 시켜만 준다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라고’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던 시절은 끝났다.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말이 자칫 저주가 돼 버릴 수도 있다. 다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더 바랄 게 없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대세라고 한다. 그런데 전체 부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98만 원 남짓이다. 부부 최소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이 액수라면 사람 만나기도 겁나고, 손주들 용돈 주기도 손 떨리고, 여행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22년 36.2%에 달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336만 명이 넘는다. 이 중 80세 이상 취업자도 3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65세에서 79세까지의 노인 중 300만 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이 연령대의 노인 중 절반이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65~79세 취업자 중 51.7%의 취업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라는 점이다. ‘일하고 싶어서는’ 겨우 8%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의 월 평균임금이 65~69세 103만 원, 70~74세 70만 원, 75~79세 37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98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취업을 하더라도 최소생활비 수준의 소득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낌없이 주고 나서 고사(枯死)하지 않기

Y씨(67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힘들게 살았고, 겨우겨우 학업을 마치고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인 시기에 건설회사를 통해 중동의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일했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며 열심히 일했다. 짧은 휴가 기간에 귀국해서 결혼을 했고, 중동 현장에 있는 중에 두 아들을 낳았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쉬움을 자식들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는 자식 교육에 올인했다. 다행히 두 아들은 이러한 바람과 투자에 잘 부응해 주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 다 이룬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결혼이 남았다. 결국 남은 것 죄다 짜내서 자식들 결혼까지 마쳤다. 더 할 것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제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자식들은 의논 한 마디



〈중동건설현장 자재야적장에서〉

없이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 세상천지에 Y씨 부부만 동그마니 남은 것 같았다. 솔직히 전혀 바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좀 서럽기도 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부부 살 길 찾아야지.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는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귀농을 결심했다. 처음에 아내는 반대했다. 생면부지 동네에서 어떻게 살며 아프면 병원을 어떻게 다니냐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는 아내를 장밋빛 농촌 생활과 현실적 재정문제로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거기에 여기 살면 손주 봐주다가 허리 망가진다고 위협 아닌 위협도 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함께 귀농과 관련한 교육이나 박람회로 쫓아다니며 적합한 정착지를 물색했다.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다. 아파트를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세를 주기로 했다. 농촌이라 해도 땅값이 만만치 않았다. 전세금을 전부 땅 사고 집 짓는 데 쓸 수는 없었다. 경매에 뛰어들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시세의 반값으로 마땅한 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천 평에서 조금 빠지는 땅이었다. 23평짜리 단층 집을 짓고 나머지 땅에 농촌기술센터와 주변 이웃들의 조언을 얻어 들깨, 무, 배추 농사를 지었다. 서툰 농사 솜씨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들기름, 절임 김장배추를 인터넷으로 팔아 생계에 제법 보탬이 되었다. 어느 정도 자리 잡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제 연금과 농업소득을 합치면 적정생활비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식들은 혹시 아쉬운 소리 들을까 무서워서 전화도 자주 못 하지만 Y씨 부부는 수시로 자식들에게 당당히 전화한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 나 잘 살 거라.’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농막의 양성화



〈불법 농막 외부〉



〈불법 농막 내부〉

이번 농막에 관련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시 점검한다. 결론적으로는 현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법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막들에 관해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행정 처분을 하고 새로 건축 신고하지 않은 농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기준은 이렇다.

첫째,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는 농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증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둘째, 지금까지 농막을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별장이나 주말 주택으로 악용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농막 설치 시에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야 한다. 건축법상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불법 증축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관리한다.

셋째, 농막 설치 시 총넓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전에는 건축법상 연면적을 상정할 때 제외했던 데크, 테라스 등을 이제는 농막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연면적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넷째, 농지를 쪼개어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사

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설치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비농업인의 경우 세대별 농지 매입은 1,000㎡까지만 가능하다. 농업진흥 구역 내 주말 체험 농장은 비농업인이라면 매수가 불가능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농막을 단속하게 되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이에 따라 ‘농민은 피해를 본다.’라는 소리도 있다. 농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농취증의 발급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그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미리 주말농장으로 체험하려 했던 수요들도 농지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바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소리도 많다. 과연 불법 농막을 제재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농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농막 한시적 양성화 조치 필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농막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법정 제재는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 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건 없는 제재가 아닌 불법 농막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 모델을 제작하는 업계에서도 양성화를 통한 규제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분별한 데크의 확장이나 천막 시공 등은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한하는 규제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면 농촌의 발전은 물론, 농촌 건축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건축업 분야까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농막을 통한 농촌 접근성은 긍정적인 효과다. 현재는 농식품부의 규제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지만, 농막 불법 증축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정부와 농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실효성의 검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명국 기자
(kookcore@naver.com)